# 이(異)신앙과 불신앙

## (롬10:16~20)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異)신앙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이(異)신앙, 다를 이(異)자를 써서, 다른 신앙과 불신앙.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주제를), 이(異)신앙이, '다른 신앙이 바로 불신앙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불신앙, 우리가 안 믿는 이유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믿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랍비여 내게 당신의 당나귀를 좀 빌려 주십시오' 랍비가 대답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당나귀가 집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 버렸다오'
그때 랍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구간이 있는 곳에서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때, 당나귀를 빌리려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당나귀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도 당나귀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믿겠소이까 아니면 당나귀 울음소리를 믿겠소이까?'
참~ 탈무드가 지혜를 담은 말이지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당신은 내 말을 믿겠소, 당나귀 울음소리를 믿겠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당나귀를 빌려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당나귀가 아침에 울타리를 나와서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구간이 있는 저쪽 집 뒤쪽에서 큰 소리로 당나귀가 울어 제칩니다.
이때, 당나귀가 아침에 도망가 버렸다는 랍비의 말을 믿겠습니까? 큰 소리로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믿겠습니까.
당연히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믿지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아요.
랍비가 괜히 거짓말 하다가 들키니까, 당황해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말 같아요.
아니, 내 말을 못 믿는다는 말이야?, 저 당나귀 울음소리를 더 믿는다 말이야?
거짓말하다가 들켜놓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랍비로서는 거짓말을 하다가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의 곤경에 처해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랍비의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당나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당나귀를 꼭 부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랍비가 당나귀를 빌려 놓고, 이제 쓰려고 하고 있든지, 아니면 당나귀를 부려서 해야 될 일을 해 놓고는 아직 옆집으로 돌려주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내 말을 더 믿습니까,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더 믿겠습니까?'라고 묻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당나귀 울음소리를 더 믿게 되면, 그 곳에 마음을 더 주게 되면, 랍비의 소리는 거짓말이 되어 버립니다.
치사한, 아주 치사한 거짓말이 돼 버립니다. 안 빌려 주려고.
그러나 랍비의 소리를 믿으면,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가 생각이 또 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못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 왜 안 믿느냐고 묻지 않고, 내 말을 믿느냐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가 막힌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복음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복음을 제대로 못 믿고, 십자가복음의 생활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로마서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요즘, 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놀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이렇게 깊고 깊고 또 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던 같아요, 제가.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 범죄의 현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도록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는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내~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다시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과의 범죄현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스스로 판단한다.
이 판단이 곧 믿음의 작용이었다는 거예요.
판단 속에 이미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이 내게 좋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그것이 내게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판단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안 좋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된 인간의 모든 판단 속에는 바로, 이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생기면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육체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고, 육체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 그 인격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든지, 영원한 생명에 처해지든지, 영원한 것이에요.

자, 이 마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마음은 비운 채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어 있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내 비워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가족을 일구고 싶어도, 애인을 만나고 싶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고 싶어도 그 근본을 따지면 전부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려는 거예요.
채울 때 만족이 생기고, 만족이 생길 때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지속될 때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워져서 만들어진 이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돈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돈이 내게 주어진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대신 돈이 주어진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돈이 안 벌립니다.
그러면 안 벌리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비어 있는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게 될 때에, 이 돈은 내 욕구에 의해서 쓰여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 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담이.

근데 이제 스스로 판단하면서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

단하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면서, 이 판단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좋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것을 내가 가질 때 내 마음이 부를 것이다,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이 배부를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야 좋다고 하는 판단 속에 이런 믿음이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행복하다고 하는 랍비의 소리가 있고, 랍비의 소리가 비유에요 비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한쪽의 소리가 있고, 또 한쪽의 소리는 돈이 들어와 좋다, 출세해야 좋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어느 소리를 더 믿느냐? 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이후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랍비의 소리를 믿을 것인가, 당나귀의 소리를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 놓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한 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유대인의 불신앙을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안 믿는 것이 현실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계속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안 믿느냐'
그 질문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생활화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느냐는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안 받아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못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방팔방으로 로마를 기준으로 서쪽 땅 전체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봤지만 그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아니라

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복음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성전에서 있었던 번제사건의 영원한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영원한 완성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월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충만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복음사건을, 왜 안 받아들일까요? 왜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것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져서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단이 죽어야 되는데 판단이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판단을 죽이고 아담의 범죄 이전처럼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그 판단을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단 속에는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마치, 랍비 소리보다는 당나귀의 소리를 더 믿는 것처럼,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은 뭡니까?
랍비가 당나귀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확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갖게 해 준다는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한 순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갖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한 여자를 우리가 사귀어서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점점 친해지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얘기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을 주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게 하려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주려는 이 복음을 안 믿는 이유는, 당나귀 소리를 더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빈 마음에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빈 마음에 채우는 거 보다, 돈을 빈 마음에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기쁠 것이라고 판단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돈의 소리를 먼저 믿었어요, 돈이 내게 있으면 내가 기쁠 것이라고 판단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돈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마음은 이미 판단과 믿음을 통해서 다른 것에 가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이 대상들을 내게 충분히 주실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철퇴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 복음이 생활화 되지를 않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왜 십자가 복음으로 열 손가락에 가락지 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끼어 안지를 않는 겁니까?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왜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를 않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직장에서는 승진이 더 내게 기쁨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불평하십니까? 돈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죽으므로 지금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불평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돈이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채웠을 때 더 배부르고 더 기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돈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주려는 것

도 아닙니다.
십자가복음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승진이 약속되는 게 아니고 출세가 약속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합격이 약속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약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다 순교하도록 만드는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님의 뜻이 튈지 몰라요.
단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면 약속 된 것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약속되어진 것은 단 하나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소망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가 현실로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락지 낀 손으로 주님을 끼어 안고 살아갈 때, 점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강한 현실로 느껴지게 해 주는 것, 이상의 것을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안 받아 들이고 복음을 생활화 하지 않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우리 판단 속에, 하나님 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벤츠타고 내렸는데(교회 주차장에), 나는 프라이드 타고 내렸어요.
자식들이 따라 내리면서, 아빠 우리는 언제 벤츠 사?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무는 거지요. '벤츠가 있어야 떳떳하겠구나!'
벤츠를 믿는 거예요, 벤츠 자동차의 힘을 믿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가 벤츠 사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벤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걱정거리를 갖고 가면, 십자가 복음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기쁠 거라고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있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느냐를 묻는 거예요, 랍비의 질문처럼.
내 말을 믿느냐? 당나귀 울음소리를 믿느냐?
어느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다, 세상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채워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믿는 겁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잡으세요.
십자가의 예수님 말고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길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현장에 나가서 살면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에 마음이 다 빼앗기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 될 때 내 마음이 기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문제 판단하면 그 문제 성공해서 다른 문제 또 생기고, 계~속 끝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친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밥 먹고 살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애 낳고 기르고 하는 모든 삶을 살고 있지마는, 주목적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앙 가짐으로써 십자가로 생활화 하는 이 기가 막힌 복된 삶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제는 중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믿는 이(異)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온종일 가락지 낀 손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끼어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